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2007년도 표어

교회여 진리의 빛으로 다시 서라  
-민족을 깨우는 우리교회 (사 51:17, 롬 13:11)

행동지침

- 1. 세계 복음화
- 2. 교회 천국화
- 3. 문화 기독교화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어린이주일메시지

## 자녀의 길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마 7:9)

여기서 우리는 부모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다. 부모의 마음, 그것은 자녀의 요구보다는 언제나 더 좋은 것을 더 많이 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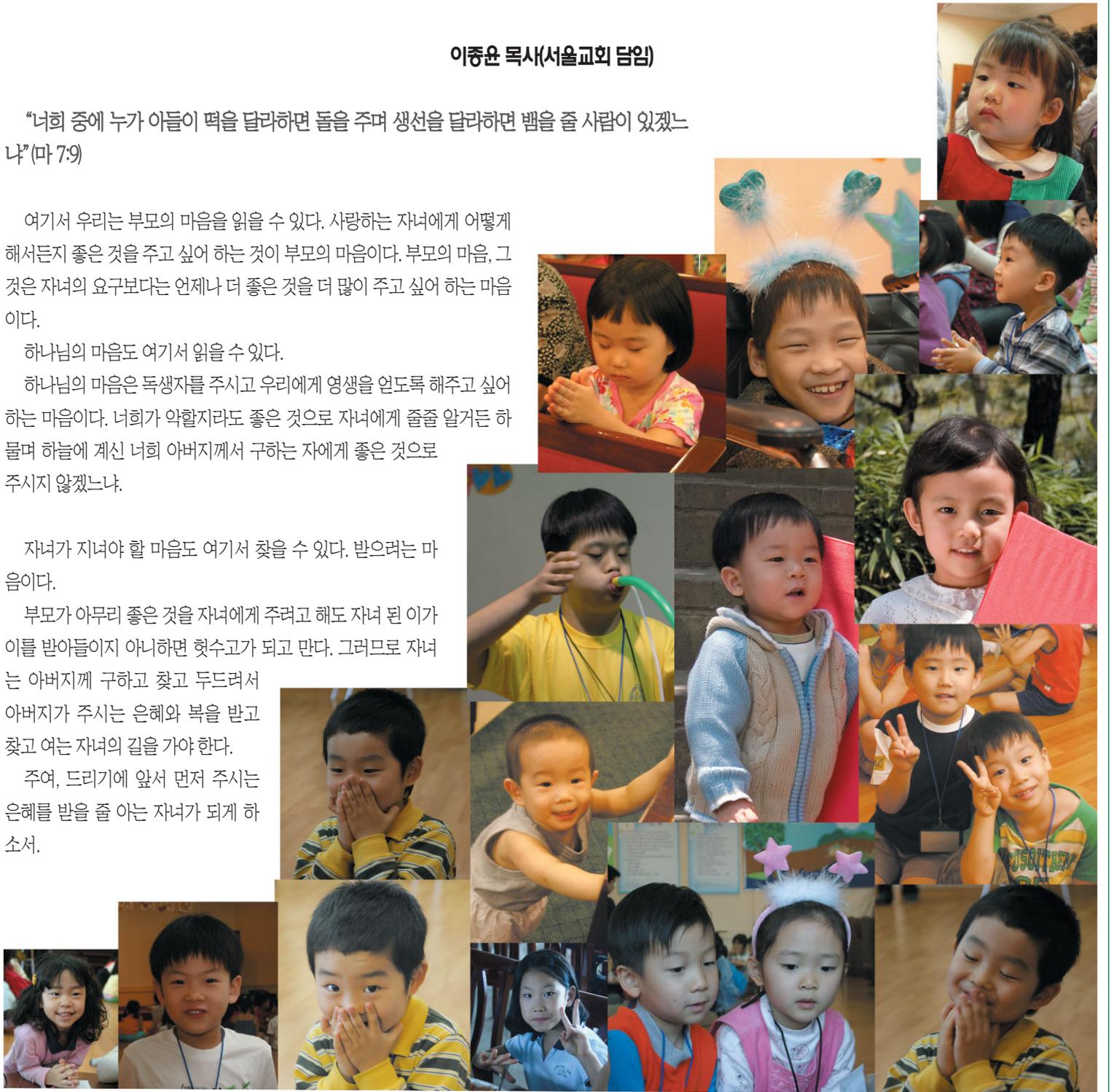
하나님의 마음도 여기서 읽을 수 있다.

하나님의 마음은 독생자를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얻도록 해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녀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녀가 자녀야 할 마음도 여기서 찾을 수 있다. 받으려는 마음이다.

부모가 아무리 좋은 것을 자녀에게 주려고 해도 자녀 된 이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헛수고가 되고 만다. 그러므로 자녀는 아버지께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아버지가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고 찾고 여는 자녀의 길을 가야 한다.

주여, 드리기에 앞서 먼저 주시는 은혜를 받을 줄 아는 자녀가 되게 하소서.



이중윤 목사 방송설교

- TV : 케이블 CH 42(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412(CBS TV) 매주일 밤 9시(각 지역별로 케이블 TV로도 시청가능)
- KISB(코리아 위성방송) 제3채널(북중미 지역 해외방송) 매주 월 오후 1시30분(한국시간)
- 라디오 :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 인터넷 : 기독교 TV (<http://www.cts.tv>) · 기독교 방송 (<http://www.cbs.co.kr>) · 중국어 인터넷방송 (<http://www.c-highway.com>)

# 다양한 행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어린이 주일

**교육1국 - 다양한 행사로 축하,  
찬양예배시간 - 서울소년소녀 합창단 특별찬양**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며 다양한 행사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 교회는 어린이주일을 맞아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맛있는 자장면을 점심으로 준비하여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갖는다.

유아부는 (부장 : 박우옥권사)는 어린이 주일을 맞아 706호에서 부모초청잔치를 열고 인형극을 공연하고 어린이들 얼굴에 예쁜 그림을 그려주는 바디페인팅 행사를, 유년부(부장 : 최광성집사)는 701호에서 친구초청잔치를 열고 학생들이 기도하며 전도한 친구들을 초청하고 학생들이 준비한 '작은 발표회'

와 '인형극'을 공연한다.

초등부(부장 : 서문석 장로)는 10시부터 한티공원에서 4월 한 달간 '어린이 단기전도학교'에서 훈련 받은 초등부 학생들이 학교에서 전도한 친구들을 초청하는 친구초청잔치를 연다.

찬양예배시간은 어린이들을 위한 더욱 특별한 시간으로 준비되는데 우리교회 부설 호산나 학교에서 초청한 '서울시립소년소녀합창단' (지휘 원학연 교수)이 우리교회를 방문하여 '호산나 나팔소리'를 비롯한 8곡의 곡을 연주한다.

## 9대 장로 선거일정 발표되다

**5월27일(주) 찬양예배 후 공동의회에서 선출**

9대 장로 선거일정이 발표되었다.

5월13일(주)에는 찬양예배 후 제직회에서 후보가 되는 안수집사, 시무권사, 협동 장로를 대상으로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 2배수 공천을 하고 5월20일(주) 순례자에 2배수 공천된 20명의 후보가 득표순으로 발표된다.

그리고 5월27일(주) 찬양예배 후 공동의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하여 2/3 이상 득표자 중 10명을 선출하게 된다.

10명을 선출하는 9대 장로선거가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은혜로이 진행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교회와 성도 앞에 덕을 세우도록 기도한다.

## 제7회 한마음 한가족 축제

**5월24일(목) 오전10시-안산공대 종합체육관**

우리교회는 교구찬양대회와 '한마음 한가족 축제'를 매년 번갈아 가며 진행해오고 있는 가운데 올해는 제7회 한마음 한가족 축제(준비위원장 오정수 장로)로 열린다. 한마음 한가족 축제는 전교인이 참가하는 체육대회로 교육1국 어린이부터 장년5부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

고 재미있는 게임을 통해 마음을 열고 한가족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축제의 자리이다.

올해 제7회 한마음 한가족 축제는 안산공과대학(재단이사장 장인원 집사)에서 열린다. 모든 성도들의 축제의 장이 되도록 기도한다.

## 세 자녀 이상 출산 가정 - 장한 어머니상 시상 -

**아버이 주일(5월13일) 찬양예배 시간**

우리교회는 지난해 새해 교회 살림을 계획하는 연말당회 시 교회 내에 세 자녀 이상 출산한 가정에 장한 어머니 상을 시상하기로 한바 있다. 5월 가정의 달, 아버지 주일을 맞아 우리교회는 세 번째 자녀를 2006년 5월 이후에 출산한 가정을 아버지 주일(13일) 찬양예배 시간에 시상하기로 하였다.

우리교회에 등록된 성도 가정으로 2006년 5월 이후에 세 번째 자녀를 출산한 가정은 수요일(9일)까지 교회 사무국이나 교구담당 목사에게 연락하기 바란다.

## 군복무자를 위한 월례 도고 모임

**오늘 오후 3시30분 901호**

비전2020운동본부(위원장 이갑진 장로)는 군복무 중인 청년들을 위한 월례도고모임을 갖는다.

도고모임은 오늘 오후 3시30분 901호에서 열리며 군복무 중인 자녀를 둔 가정은 필히 참석하여 자녀들이 그들의 자리에서 국가에 충성하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며 군과송 준선교사로 전도의 사명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기 바란다.

## 헵시바찬양팀초청 받아

우리교회 청년으로 구성 된 헵시바 찬양팀이 5월 31일(목) 오후 7시 영락교회에서 열리는 전국 여전도회연합회 주최 제9회 정기 연주회에 특별출연 요청을 받고 출연한다.

### 금주의 성구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치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태복음 4:6-7)

"If you are the Son of God," he said, "throw yourself down. For it is written: "He will command his angels concerning you, and they will lift you up in their hands, so that you will not strike your foot against a stone." Jesus answered him, "It is also written: 'Do not put the Lord your God to the test.'"

(Matthew 4:5-6 [NIV])



만민에게 전도 - 방글라데시에서 온 편지

# 아샤가 된 아이들!

## 조남혜 선교사

서울교회 성도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기도로 아샤(소망)호스텔이 개원하여 은혜 중에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재 호스텔 책임자로 있으며 10명의 아동이 입소 (PLAY:3명 . NURSERY:2명 . KG:2명 . CLASS1:3명)하였고 현직직원 2명(호스텔 매니저1명(주엘), 요리사1명(따라), 임시직원: 1명.(학교 인력거 운전기사)을 고용하였습니다.

2월2일과 3월2일에는 학부모 전체 미팅 및 예배(전체 무슬림 부모. 10명중 아빠가 없는 아동이 8명)를 드리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아샤 호스텔의 하루는 오전 6시부터 시작되어 6:30에 아침 기도회 후 식사, 7:30에 학교로 출발합니다.(유치부는 11시에 마치고, 1학년은 오후 1시에 마칩니다.) 오후 1시에 학교 마치고 호스텔에 돌아와 식사하고 2시-3:30까지 오후 낮잠 및 휴식시간, 3:30-5:00 숙제 및 특별 클래스를 갖고(현재 이 나라 봉사자가 미술 및 음악 게임 과학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6시-7시 저녁식사, 7시-8시 :공부 및 자유시간, 8



시-9시 :저녁예배 및 기도회, 오후 9시-10시에 잠자리에 듭니다. 이곳 방글라데시는 금요일이 휴일인데 오전에 주일예배와 공과 공부를 합니다.

## 아샤(소망)호스텔 기도제목입니다.

1. 매달 첫 주 금요일에 있는 부모님과의 연합 예배시간에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알아가고 믿어 호스텔 아이들 모든 가정들이 예수님 믿는 가정들이 되

## 도록.

- (또한 자녀들이 예수님 영접 하는 것을 부모들이 반대하거나 저희 소망 호스텔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지 않고 돕는 자들로 서도록)
2. 매니저인 주엘 형제의 가족(부인, 아들 딸 각 1명씩) 구원, 아빠 없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아빠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이들을 섬기도록...
3. 요리사인 따라 아줌마 (남편과 아들2명) 출, 퇴근시 안전과 엄마 없이 떨어져 사는 아이들을 엄마처럼 사랑으로 품도록...
4. 아이들이 예배와 기도와 말씀 듣는 중에 하나님

과 예수님을 알고 믿어 정말 미래에 이 땅 곳곳에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아이들로 자라도록...

5. 학교와 호스텔 안에서의 어린이들의(만 4세-10세)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주시고.

6. 저를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곳 네이버스 모자보건 센터 일과 소망 호스텔을 주님 뜻 안에서 지혜로 인도받으며 기쁨과 감사로 운영할 수 있도록...

매일 저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살고 있습니다. 자녀와 사역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만 바라는 믿음으로 살길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와 목사님 기도해주시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안부를 전합니다.

## 살림을 전하며~



만민에게 전도 - 방글라데시 도고팀

# 어두운 이 땅에 복음의 빛을...

### 내 하는 일 너무 미약하여, 보내는 선교대열에 서서 부족한 모습 그대로 엎드립니다



## 양정실 집사(방글라데시 도고팀)

나를 사랑하사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님, 믿게하시고 부활의 영광과 영생을 주신 그 큰 은혜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 복된 이름이 죄로 어두웠던 이 땅을 고치시고 회개와 부흥의 불길 이어져 이제 이나라는 세계선교 제 2위국이 되었습니다.

특히 복음의 불모지인 방글라데시를 품고 다가의 빈민가에 버려진 어린이와 어머니들을 돌보며 복음을 전하시는 조 남혜선교사님의 사역과 그 땅에 하나님의 자비와 뜨거운 관심이 함께 하시길 간구하며 이 기도의 공동체에 함께 동참할 성도님들이 더 많이

생겨지기를 기도합니다.

매주일 오후 4시 905호에 함께모여 (주중에는 각 요일별로 두세명씩 조를 이루어 개인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을 도울수 있을지 지혜를 구하며 기도제목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합심하여 기도할 때 우리 자신들이 더 큰 은혜를 받고, 개인의 문제들까지 풀려지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당신께 초점이 맞춰진 우리의 작은 생각을 이루시고, 보잘 것 없지만 순종하는 첫 발자국에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작년 9월, 우리 서울교회 지원으로 개원한 학생 기숙사(소망 호스텔)에 현재 10명의 어린이들이, 일반학교에서처럼 의무적으로 무슬림교육을 받지 않고, 한국 선교사님이 운영하시는 학교를 다니도록 인도하신 것과 대외부에 화상을 당했던 '조이'가 다 나서서

학교에 다닌다고 하니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기숙사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주님의 참 제자로 양육되어져 방글라데시의 변화의 주역들이 되고, 버림받은 어머니들이 말씀으로 치유 되며 기독교로 개종한 자들(호스텔직원으로 '주엘' 형제와 '따라' 아주머니를 세워주심)이 믿음의 뿌리를 잘 내려 가족과 친척, 이웃을 전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굿 네이버스 모자보건센터에 현지 리더를 세울 수 있도록, 선교사님들의 비자와 안전을 위하여, 조선교사님의 양가 부모님, 형제들의 구원을위해, 자녀들(이나라 한동대4년, 휴학 중, 현지사역 돕고 있음, 이겨래 총신대2년)을위해, 방글라데시에 속히 안정된 정부가 들어서고 주일이 주일되며 전도의 자유 보장받는 나라되도록 끊임없이 기도 할 것입니다.

#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강예빈 (유년부 2학년)

제 꿈은 대통령이 되는 것이고 존경하는 인물은 링컨 대통령입니다. 링컨 대통령은 하나님을 믿으며 어려서부터 책도 많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저도 링컨 대통령처럼 책을 많이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 대통령이 되어서 우리나라를 하나님 나라처럼 행복이 넘치는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하나님 뜻대로 살 것입니다.

김지오 (유년부 3학년)

하나님 안녕하세요. 제 장래 희망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제 장래희망 1번은 선생님이에요. 아이들에게 지식을 쌓아 줄 수 있어 좋을 것 같아요. 장래희망 2번은 화가예요. 자기의 감정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은 멋진 일 아닌가요? 전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해요. 3번은 가수예요. 마음껏 노래를 하면 좋아지니까요. 우리 아빠는 제가 외교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세요.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과 이야기도 하고 모습도 보고 여러 가지를 알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하나님께 제일 영광 돌리는 것은 선생님이라고 생각해요. 아이들의 머리에 지식을 심어주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이동권 (초등부 6학년)

어린이날은 무슨 날일까? 부모님에게서 장난감을 선물 받고 놀이공원에 놀러가는 날일까? 성경말씀이 생각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

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예수님은 이런 말을 왜 하셨을까? 아마도 예수님은 우리를 무척 사랑하신 것 같다. 왜 사랑하셨을까? 어린이는 어른처럼 욕심을 많이 내지 않고 착하고 나쁜 짓 안 해서 일까? 나는 궁금한 것이 참 많다. 요즘 우리들은 어른들보다도 더 바쁜 것 같다. 영어, 수학, 논술, 태권도, 피아노학원... 컴퓨터 게임도 해야 하고 친구들과 뛰어 놀고도 싶고. 놀토(노는 토요일)가 아니면 놀기 어렵다. 문득 4학년 일기 사건이 생각난다. 예쁜 우리 선생님께서 선생님 교회 안다니시면 교회를 다녀 보시라고 일기에 썼다. 선생님은 이렇게 답 글을 달아 주셨다. "교회에 다녀도 좋겠지만 다니지 않더라도 서로 믿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지 않을까"라고 하셨다. 나는 무척 당황했다. 내 꿈은 선생님이 되는 것이다. 가르치는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예수님 우리 어린이들이 잘 자라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사랑해요..."

## 나의 신앙생활

이준현(초등부 5학년)



아직 어리기 때문에 나에게 그리 큰 신앙은 없는 듯 합니다. 그러나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여러분께 소개해 보겠습니다. 주일이 되면 저는 7시 30분에 일어나 8시에 교회를 갑니다. 찬양대를 하기 때문에 남들보다 1시간 일찍 교회를 가는 것이지요. 찬양대를 하기 전에는 9시 가족에 배 시간에 맞춰 가는 것도 힘들었는데 찬양대를 하는 지금은 시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

다보니 예배 시간에 늦지 않아서 일거양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종운 목사님의 설교는 우리 가정과 관련된 내용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린 후에 저는 많은 것을 생각하곤 합니다. 예배후 초등부에 올라와 친구들과 공부하는 시간도 내게는 즐거운 시간입니다. 전에는 친구들이 가끔 저를 놀려서 기분이 나쁘기도 하였지만 지금은 그런 친구들 모두 다 제게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전에 교회 오기 싫었

을 때를 생각해 보면 내가 왜 그렇게 바보같은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초등부가 끝난 후 집에 갔다가 저는 다시 찬양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로 옵니다. 어머니는 제게 찬양예배까지 드리는 것이 주일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주일을 준비합니다”**

어머니는 제가 잠자리에 들 때마다 기도를 해주십니다. 저 역시 학교에서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기도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만의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학교에 가면 전도를 해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한 친구라도 전도하여 서울교회로 인도할 작정입니다. 한 주일의 마지막인 토요일, 저는 또 교회에 갑니다. 초등부에서 하고 있는 성경통독에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한 주일을 마치고 저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주일을 준비합니다.

천국시민양성

# 아빠의 마음

김규원 집사 (9교구)

이제 4개월 된 딸 채언이를 둔 초보 아빠입니다. 아직 짧은 시간이라 아버지의 마음을 이야기하기에는 이른 감은 있지만 감히 몇 자 적어봅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시작된 아내의 진통은 34시간이라는 긴 시간동안 지속되었습니다.

끝날 줄 모르며 반복되는 진통의 시간동안 초조함과 걱정이 많이 앞서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는 생각 속에서 아내와 아이의 건강을 위해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출산 직후는 기쁨보다 산모와 아기가 건강함에 안도감이 우선 앞섰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서인지 우선 되었던 안도감은 점차 기쁨으로 변해가면서 주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은 커져만 갔습니다. 지금은 아이의 작은 몸짓, 손짓 하나에도 특히 웃을 때는 그 기쁨을 말로 표현 할 수가 없습니다.

제 딸아이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이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인간이 주님의 십자가 고통을 통해 새로 거듭날 때 얼마나 기뻐하실 지를...

부모의 의미는 사랑하는 자식의 보호자며 건강한 양육의 책임을 진다는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소중히 받아들여 개인적 욕심보다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키울 수 있도록 늘 기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항상 주님 안에서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천국시민양성



# 감사해요

<어머니의 눈>

어머니의 눈은  
나의 거울  
어머니는  
나의 의망  
반짝 반짝 빛나는  
어머니의 눈은  
나의 임이 되어 주시길요.

아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아나님  
사랑이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감사해요.  
저 지금까지 먹여주시고 키워주셔서...  
죄송해요. 말도 안 들어서...  
안 그럴게요.  
죄송해요.  
그리고 사랑해요.  
감사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감사해요.  
이 가정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엄마, 아빠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어머니께 위의 시를 바칩니다.

최지혜 (유년부)

천국시민양성

# 엄마의 마음

손영희 집사 (3교구)

예준아!  
하나님께서 너를 우리가정의 새 식구로 보내 주신지 이제 한 달이 되어가는구나.

하나님께서 너희 아빠와 결혼한지 일년 만에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셔서 너를 임신하게 하셨고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너를 생명 싸개 속에 280여일 동안 키우시고 보호하셨다가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

너를 만나기까지 엄마는 25시간이라는 긴 해산 고통을 겪어야 했지만 따뜻하고 조그마한 너를 품에 껴안는 순간 그 고통의 시간들을 어느새 먼 과거로 흘러보내게 되었다. 네 엄마로 말하면 너의 아빠와 엄마를 30여년 이상 기도와 눈물로 키워내신 친할머니와 외할머니에 비하면 막연히 잘해 보겠다는 의무적인 마음만 앞서는 정말 초보엄마야 그래서 너를 영과 육의 균형이 잡힌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기 위해 한 손에는 성경을 다른 한 손에는 육아서적을 가지고서 늘 고민하며 기도하고 있어.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네 엄마에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내려 놓았던 것같이 엄마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항상 내려 놓아야 한다는 마음과 "나는 심었고 아블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고전 3:6)"라는 말씀을 주



셔서 너를 향한 품었던 조급하고 근심된 마음에 진정한 평안을 찾게 되었다.

우리 예준이 매일 아침 아빠가 머리맡에서 읽어주시는 성경말씀 잘 듣고 있지?

엄마는 우리 예준이가 우리 삶의 최고 모범이 되시는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 되길 바라기 때문에 네가 세상에서 제일 먼저 접하는 책이 성경말씀이 되게 할 것이고 이 성경말씀의 주인공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제일 먼저 얘기해 줄 계획을 가지고 있어.

세상지식 습득에 앞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를 먼저 깨우치도록, 그리하여 바른 신앙인격을 지닌 정직과 사랑을 품은 온전한 크리스찬으로 세상을 향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예준이가 되도록 엄마는 열심히 기도하고 있단다.

우선적으로 우리 아기 예준이에 대한 엄마의 기대는 "예수님께서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눅 2:52)의 말씀 속의 예수님처럼 몸도 튼튼하게 자라고 그와 더불어 지혜도 쑥쑥 자라나서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운 아기가 되는 것이니, 우선 이것을 목표로 우리 함께 노력하자꾸나.

모든 생명이 싹트는 봄날 따스한 햇살 아래 새근새근 평안히 잠자고 있는 사랑스러운 너를 바라보며...

